

화려한 무대 뒤 23명의 땀방울 있었습니

'ACC 백스테이지 투어'를 가다



화려한 무대 뒤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난 9일 'ACC 백스테이지 투어' 현장을 찾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공연 휴식기인 겨울철 관객들이 평소 공연·전시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는 백스테이지를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주 수요일 1회 운영하고 있다.

15명까지 선착순 신청할 수 있는 백스테이지 투어는 매년 조기 매진되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이날도 만원이었다. 백스테이지 투어를 시작한 지난 2017년에는 두 달 동안 141명이 참가했다.

이날 투어는 오후 5시 30분 민주평화교류원 방문자센터로 모여 관람예절을 익히고 리시버(무선 수신기)를 장착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애리 해설사는 문화전당의 구조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단히 소개한 뒤 참가자들을 지하 10층 깊이(20m) 예술극장1로 안내했다. 오케스트라·연극·뮤지컬 등 공연이 열리는 극장1은 무대와 객석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가변형(블랙박스형) 극장이다.

해설을 맡은 양필주 무대기술팀장은 아무 것도 설치되지 않은 텅 빈 극장 내부에서 무대·조명·음향·객석 장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역할과 기능을 설명했다. 800kg 무게의 조명·음향 시설을 달 수 있는 배튼(batten)을 천장에서 내려 보여준 그는 야외로 무대를 확대하는 높이 15m의 빅도어를 열어 '포토 타임'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양 팀장은 참가자들을 가로·세로 7m의 무대 모듈에 모이게 한 뒤 '무대 업'을 외쳤다. 그러자 곧 발동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모듈이 위로 솟구쳤다.

"신기하죠? 이 모듈은 최고 6m까지 올

지하 10층 깊이 예술극장1 6m 오르내리는 무대 눈길 분장실·의상실·창작센터 등 최고의 작품 위한 전쟁터

2월까지 수요일 무료 예약제

라갈 수 있어요. 지난해 연극 '백배스 411' 때 회전무대를 포함한 마당극 무대형태를 만들 때 이 기술을 이용했어요. 정면은 물론 사이드 객석에서도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최적의 관람 환경을 만들었죠."

플래시를 터뜨리며 무대 내부 공간을 찍던 참가자들은 저마다 문화전당 공연을 본 경험을 살려 무대 설치 과정과 장비의 기능, 최대 객석 수 등을 꼼꼼하게 질문했다.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곳이 무대라면 무대 뒤는 제작진들의 땀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양 팀장은 극장 뒷편 출입구를 통해 각종 구조물과 장비가 보관돼 있는 창고와 회의실, 의상실, 공연과 연습을 함께 할 수 있는 아틀리에 등을 소개했다.

이번 투어의 백미 중 하나는 분장실이었다. 문화전당은 화장실과 샤워실이 갖춰진 분장실 10실을 운영하며 100여 명의 출연진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전당에 상주하는 무대기술인력 23명은 최고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돕고 있어요. 무대 뒷편은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각 분장실에 대기하는 출연진은 "무슨 신 누구 준비하세요"라고 방송 호출이 오면 아래층 백스테이지까지의 55m 경 사로를 한달음에 달려가야해요.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 지 모르니까 일반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죠."

참가자들은 분장대의 눈부신 조명 아래서 연신 셀카를 찍기도 했다.

40분 정도 진행된 투어의 마지막 행선지



지난 9일 'ACC 백스테이지 투어' 참가자들이 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무대 모듈의 수직 이동을 체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는 문화창조원의 창작제작센터(ACT 스튜디오)였다. 안재영 ACT기획팀 대리는 디지털조형실을 비롯한 콘텐츠 창·제작 공간을 안내하고 3D 프린팅을 시범하기도 했다.

각각 전시와 무대기술에 관심이 있어 백스테이지 투어에 참가했다는 25세 또래친구 신은서(단국대 동양화학과 4년)·김민경(전남대 조소전공 4년)씨는 "공연이나 전시·포럼 등 문화전당 행사에 더러 참여했지만 무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혀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며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맺어진 결과이기에 앞으로 더 각별하게 관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2월27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진행되는 'ACC 백스테이지 투어'는 문화전당 홈페이지(acc.go.kr)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극장1에 설치된 15m 높이 빅도어를 개방하는 모습.

어쩌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



'명상'

정인선전 18일까지 광주 북구청갤러리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소박한 풍경과 정물들도 작가의 감성이 더해지면 작품이 된다.

서양화가 정인선 개인전이 오는 18일까지 광주 북구청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작은 일상에서 길어올린 정물 작품들과 여행 중에 만난 풍경들을 소재로 삼았다. 대상에 따라 단순하게도, 세밀하게도 표현했으며 그 속에서 깎여 낸 문양들을 장식적으로 표현하고 사물 속 흠집이나 나뭇결까지도 문양처럼 묘사했다. 작가는 습한 스케치를 통해 구도를 정한 후 캔버스나 나무 위에 작업을 하고 혼합 재료와 나이프를 사용해 오목 느낌이 나도록 밀그림 작업을 하거나 바탕에 질감을 두텁게 채색한다.

화폭에 담긴 풍경은 도심에 산책하다 만난 골목길, 시골집 장독대의 가을, 토담에 기댄 봉숭아, 좋아하는 옛 물건의 문양들, 섬마을 풍경, 고즈넉한 산사의 댓돌에 놓인 신발 등이다.

전남대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을 수료한 정 작가는 1985년부터 10여년간 중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학교를 그만둔 후 2001년 첫 개인전을 열었던 정 작가는 지난 2016년 두번째 개인전을 개최했다. 현재 토마스 누드 크로키회, 그리미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10-3604-345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세현 작 Boundary_in Jieshou Park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교류 성과전

28일까지 서울 인사동 G&J 광주전남갤러리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지난해 국제 교류의 성과를 모은 전시회를 개최한다. 오는 28일까지 서울 인사동 G&J 광주전남갤러리에서 '2018 BRIDGE(브릿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획은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에 입주한 2명의 광주 작가와 2018년도 해외 각 교류기관에서 3개월 동안 레지던시에 참여했던 파견작가 3명의 결과발표전이다.

참여자는 국제레지던시 입주 광주작가, 윤세영, 이정기와 2018년도 해외 교류기관 파견작가인 이세현(대만 타이난 샤오롱아트스튜디오), 김자이(독일 뮌헨 문화부 국제레지던시), 문유미(대만 타이페이 아티스트빌리지)씨다.

윤세영 작가는 가시의 형상을 통해 에너지가 변화하는 지점을 시각화한 '생성지점'을 선보이며 '현재는 과거라는 자양분

위에서 미래라는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이정기 작가는 '해석이 필요한 유물'을 전시한다. 또 역사적인 장소에서 들은 단지는 행위를 포착하는 작업을 해온 이세현 작가는 레지던시 장소였던 대만 타이난에서 촬영한 'Boundary_in Jieshou Park'를, 김자이 작가는 휴식의 언어를 시각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전시한다.

그밖에 자연현상에 대한 경이, 과학적 진실에 대한 호기심, 신에 대한 의문, 그리고 현 시대의 인간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져온 문유미 작가는 'The First Supper'를 선보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년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GOLD회원 모집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연회비

구분	연회비(VAT포함)	비고
개인(1년)	₩ 2,800,000	본인 1인
증정품		• 객실 무료이용권 2매 • 레스토랑 이용권 1매 • 휘트니스 이용권 4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